

‘모가디슈’ 류승완 감독 “출발부터 도전…극장 개봉 절실했다”

소말리아 내전 고립 남북 대사관 공관원 극적 탈출 실화 모티브
“북한을 통일 대상이 아닌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
모로코서 4개월 촬영 압도적 스케일 자랑…28일 개봉

올여름 최고 기대작으로 꼽히는 한국 영화 ‘모가디슈’가 압도적인 몰입감과 스케일을 자랑하며 베일을 벗었다.

류승완 감독은 최근 시사회 직후 열린 간담회에서 “출발부터 도전이었다”고 감회를 밝혔다.

실화를 모티브로 한 ‘모가디슈’는 1991년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에서 내전으로 고립된 남북 대사관 공관원들의 극적인 탈출 과정을 다룬다.

영화는 모로코에서 4개월간 100% 현지 로케이션 촬영으로 제작됐는데, 군중들의 시위와 총격전, 카체이싱(자동차 추격) 등 스케일 큰 액션은 물론 남북관계 속에 녹아 있는 가슴 뭉클한 이야기까지 담고 있다.

‘베터랑’ (2015), ‘베를린’ (2012) 등 굵직한 액션 영화를 만들어 온 류 감독은 이번 영화에서 1990년대를 재현하고, 내전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 인물들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공을 많이 들였다고 전했다.

그는 “내전이라는 고립된 환경에 처한 인물들의 공포감, 절박함, 절실함을 얼마나 긴장감 있게 만들어 낼 것인가 (연출의 포인트였다)”며 “큰 규모의 영화를 만들다 보면 배경을 찍다가 인물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환경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돋보이게 할지를 생각했다”고 연출 의도를 밝혔다.

이어 “당시(영화의 배경)가 그리 먼 과거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사실을 재현하려고 했다”며 “4개월간 밖에 나가서 촬영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다치지 않고 끝낼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다”고 했다.

영화에서는 북한 사람들의 대사가 자막으로 처리됐다. 이에 대해 류 감독은 ‘베를린’ 때 북한말이 잘 들리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 이를 반영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류 감독은 “요즘 젊은 세대는 대중매체에서 북한말을 듣는 일이 적고, 북한을 다른 국가로 인지하고 있다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았다. 영화에서 (북한을) 이전 세대의 방식, 통일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려고 했다”며 “북한을 온전히



오는 28일 개봉하는 영화 ‘모가디슈’는 1991년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에서 내전으로 고립된 남북 대사관 공관원들의 탈출 과정을 다룬 작품이다.

타국으로 인지해야 관객들이 인물들을 이해하는 것도 빠를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날 류 감독과 배우들은 영화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속에서도 극장 개봉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류 감독은 “배우들이 개봉을 꼭 극장에서 해야 한다고 했고, 그 누구보다 내가 절실했다. 영화를 보면서 더 (극장 개봉이 맞다고) 느꼈다”며 “공들인 만큼 극장에서 보면서 체험할만한 영화”라고 전했다.

영화는 오는 28일 개봉한다.

/연합뉴스

개그맨 박수홍, 친형에 116억대 민사소송 제기

“법원, 부동산 가압류·가처분 신청 인용
불법행위 혐의 어느 정도 명백 방증”

개그맨 박수홍(사진)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116억 원대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 측은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22일 박수홍의 친형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에스에 따르면 기존 손해배상 요구액은 86억 원이었으나 사건 조사 과정에서 개인 통장 횡령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청구 취지를 확장하고 손해배상 요구액 규모도 30억 원가량 늘렸다.

또한 박수홍이 친형 부부 명의의 모든 부동산에 대해 제기한 가압류 및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도 각각 지난달 7일과 19일 받아들여졌다.

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통상 횡령으로 인한 불법 행위와 관련한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은 현금 공탁이 나오는데, 이번 사안은 100% 보증보험 공탁이 나왔다”며 “이는 법원에서 불법행위 혐의가 어느 정도 명백하다고 봤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차적으로는 80억 규모로 가압류 신청을 했으



나 추가 가압류 신청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수홍은 앞서 친형 부부가 30년간 출연료를 횡령했다고 밝히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친형 부부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당시 박수홍 측은 그의 친형이 설립한 매니지먼트법원에서 나온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법인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일부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박수홍 친형 측은 횡령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오바마, tvN ‘월간 커넥트’ 출연…“국내 프로그램 최초”

백악 오바마(사진) 전 미국 대통령이 국내 TV 프로그램에 처음으로 출연한다고 최근 tvN이 밝혔다.

tvN 측은 한 달에 한 번 온라인으로 세계적인 지식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 ‘월간 커넥트’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나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방영 시기는 다음달 6일 밤 11시 10분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방송에서 정치인이자 남편으로서 일과 가정에 모두 충실할 수 있었던 배경, 대중과 밀접하게 소통하는 과정, 회고록 ‘약속의 땅’ 출간 뒷이야기 등을 전할 예정이다.

tvN 관계자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회고록 국내 출판을 담당하는 출판사를 통해 섭외를 진행하게 됐다”며 “젊은 세대들을 위



해 회고록을 썼다’는 책 내용을 보면서 ‘월간 커넥트’에서 그의 통찰을 전달해보고 싶었다”고 섭외 배경을 밝혔다.

연출을 맡은 공효순 PD는 “국내 TV 프로그램 최초로 정치인이자 인간 오바마의 매

력어 그 특별한 인사이트를 월간 커넥트를 통해 전달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현준, 장예원, 김동환, 김지윤이 진행하는 ‘월간 커넥트’에는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와 세계적 투자자 짐 로저스 등이 출연한 바 있다. /연합뉴스

이승기, SBS 오디션 프로그램 ‘라우드’ 합류

SBS TV는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오디션 프로그램 ‘LOUD : 라우드’ (이하 ‘라우드’)에 합류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승기는 ‘슈퍼 에이전트’ 역할을 맡아 참가자들이 소속사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조건을 비교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제작진은 “이승기는 JYP와 피네이션이 각각 만드는 두 팀의 멤버가 확정되는 마지막 여정까지 함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라우드’는 박진영과 싸이가 심사위원으로 나서 각자의 회사를 대표할 새 보이그룹 두 팀을 뽑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다.

이승기가 합류한 ‘라우드’는 24일 첫 방송됐다.

/연합뉴스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